한형조

무문관 답방

23

국사의 혓바닥

*국사가 시자를 세번 불렀다. 시자는 세번 대답했다. 국사가 말했다. "내가 너를 저버렸다 하겠지만 실은 네가 나를 저버린 것이다."

*나 혜개가 말한다. "국사는 세번 불러 혀가 땅에 떨어질 지경인데, 시자는 세번을 수굿수굿 대답했다. 국사는 나이가 들어 그적한 마음에 '소머리를 눌러 풀을 먹게' 하였는데, 시자는 이를 받들지 못했다. 좋은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법이다. 그럼, 말해보라. 어디가 시자가 저버린 곳이냐. 나라가 맑으면 재사들이 높임받고, 집안이 부유하면 아이들 버릇이 없어진다.

*송하여 가로되, 쇠칼을 머리에 쓰라 하니, 자손에게 미치는 누(累)가 심상치 않다. 문을 받치고 집을 버티고자 한다면 다시 맨발로 칼산을 올라야 하느니.

國師三喚

國師三喚侍者. 侍者三應. 國師云, 將謂吾辜負汝, 元來却是汝辜負吾. 無門曰, 國師三喚舌頭墮地, 侍者三應和光吐出. 國師年老心孤, 按牛頭喫草, 侍者未肯承當, 美食不中飽人飡. 且道. 那裏是他辜負處. 國淸才子貴, 家富小兒嬌. 頌: 鐵枷無孔要人擔, 累及兒孫不等閑. 欲得撐門拜戶, 更須赤脚上刀山.

그림 · 이준석

국사(國師)는 황제의 스승으로 국가의 벼슬을 받은 고승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이 역사상 한둘이 아니겠지만 선종의 전통에서 '국사'라 하면 단 한 사람 육조 혜능(慧能)의 제자인 남양(南陽)의 혜충국사(慧忠國師 ?~775)라 알면 틀림없다. 혜능의 법을 얻어 등주(鄧州)의 백애산(白崖山)에서 띠집을 짓고 40년을 정진하며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황제 숙종(肅宗)이 소문을 듣고 그를 수도로 청했다. 궁궐 근처에 머물며 혜충국사는 다음 대종(代宗)에 이르기까지 15년간 무상도(無上道)를 설했다. 그는 죽어서도 가르침을 폈다. 이 혜충국사의 무덤 곁에서 둔하고 더딘 근기인 향엄(香嚴)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자갈소리에 대오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 이 공안은 무봉탑(無縫塔)과 함께 국사의 대표적인 공안으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갖는다. 특히나 운문(雲門)과 동산(洞山) 사이 세 번의 문답이 오간 15칙 동산삼돈(洞山三頓)이 이 공안과 동일한 구성,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산도 시험에 실패하여 세 차례 몽둥이 찜질을 받을 뻔했고, 지금 국사의 시자도 화광토출(和光吐出), 묻는 대로 고분고분 대답하여 국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동산은 온밤을 시험지를 끌어안고 뒹굴어 다음날 문제를 풀었지만 지금 시자는 영 그럴 기미가 없다는 것뿐.

국사는 아무래도 무리를 했다. 선가에서는 줄탁지기(啐琢之機)라 하여 인연 혹은 계기를 중요시한다. 제자의 수련이 무르익어 알을 깨고 나올 때쯤 스승은 그 타이밍에 맞추어 정수리에 일침을 가한다. 너무 늦으면 새끼는 알 속에서 질식할 것이고, 너무 일러도 알은 허망하게 쏟아져 버릴 것이다. 지금 국사는 '늘그막에 혼자 외롭고 고적한' 나머지, 덜 익은 알을 쪼아버렸다. 실제 선종의 계보를 보면 혜충국사에게는 법손이 없어 적막하다.

국사는 시자를 이끌고 선(禪)의 여물을 먹이려고 머리를 눌러댔지만 시자는 전혀 먹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맛난 음식이어도 배가 고파야 생각이 동하는 법이다. 혜개는 국사가 시자에게 진리에의 허기를 느끼게 해 주지 않은 것을 은근히 나무란다. 그래놓고 우격다짐으로 풀을 먹이려 하니 되겠느냐는 것이다. 혜개는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의 시를 인용하여 "나라가 맑으면 재사들이 높임받고, 집안이 부유하면 아이들 버릇이 없어진다"고 썼다. 선(禪)의 문호는 오직 선의 붉은 진리를 통해서야 지키고 이어갈 수 있다. 뼈를 깎는 엄정함과 가열찬 노력, '맨발로 칼산에 올라가는' 분발과 용맹정진이 전제되어야 한다. 혜충국사의 시자는 오냐오냐 하고 자란 탓에 근골이 여물지 않았던 듯하다.

將謂란 '무엇무엇이라 하겠지만'이라는 뜻이다. 謂는 '여긴다, 혹은 말한다'이고, 將은 미래나 추측, 혹은 가능 등의 미확실성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將謂는 다음 이어지는 元來와 却是와 연관되어 있다. 元來도 지금과 옛을 대비하는 역접형이고, 却是 또한 국면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무엇이라고 말하겠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거나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이렇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辜負는 저버리다, 등지다, 배신하다는 뜻. 舌頭墮地는 글자 그대로 "혓바닥이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과장되이 표현한 말이다. 和光吐出에서 和光이란 〈노자(老子)〉에 나오는 말로, 자연이 모난 것을 깎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조정과 균형을 찬탄한 것이다. 그를 닮아 인간도 또한 예각을 접고 이해와 협력과 화해를 일구어가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이 말이 두리뭉실 좋은게 좋다쪽으로 의미가 미끌어진 듯하다. 화광토출은 그래서 공손한 자세로 분위기에 맞추어 그때그때 응답하는 유유한 모습을 가리킨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좋은음식 배부르면 소용없어

"허기느끼게 하지않고 먹이려 하다니…"

法數로 배우는 불교

〈33〉

지나친 고난·풍요·시청각장애 등 불법 공부하기 어려운 8가지 환경

바다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씩 물위에 목을 내 놓는데 우연의 일치로 떠다니던 통나무 구멍에 머리가 꿰어져 육지에 나온다는 설화가 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를 장수천이라는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맞춘다는 비유도 있다.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강조하는 얘기들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 세상에 태어나도 인간의 몸받기 어려우며 인간의 몸 받아도 불법

팔난(八難)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도 깨닫기 어렵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 생각해보면 한량 없는 뭇인연에 끌려 세상을 살면서 불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신체적 조건을 구비하고 태어난 사람도 죄근이 많고 업장이 두터우면 법을 깨닫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불구의 몸을 받았거나 인간이 아닌 몸을 받은 하열 중생들이 법을 깨닫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항상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법 만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깨달음 얻기를 발원하되, 만약 금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다시 복많은 인간으로 태어나 불도를 성취하기를 염원해야 한다. 모든 크고 작은 일이 그러하듯 부처님의 법도 인연이 구비되어야 만이 닦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진수성찬의 좋은 음식도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듯 불법이 아무리 좋다해도 받아들일 중생의 근기가 모자라면 어쩔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법은 있으나 법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인 중생들의 종류에 여덟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팔난(八難) 중생이라고 한다.

팔난은 첫째 재지옥난(在地獄難)인 지옥에 처한 경우와 둘째 재축생난(在畜生難)인 짐승의 몸을 받은 경우, 셋째 재아귀난(在餓鬼難)인 주린 귀신이 되었을 경우와 넷째 재전불후난(佛前佛後難)인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이나 가신지 오랜 후의 경우다. 이러한 여덟가지중 앞의 지옥·축생·아귀의 난은 중생의 생활이 너무 괴롭거나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아 법을 닦기가 어려운 것이고, 다음의 장수천·율단월의 난은 생활이 너무 풍요롭거나 즐거워서 법을 닦기가 어려운 것이다. 장수천은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 하늘중 색계 네번째에 속하는 천상계로 이곳의 수명은 오백대겁이나 되므로 도(道) 닦을 마음을 내지 않고 율단월은 사바세계의 수미산 북쪽에 위치하는 구로주(俱蘆洲)라는 곳인데 복락이 넘치기 때문에 역시 도 닦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너무 괴롭거나 즐겁지도 않은 적절한 환경에는 살고 있지만 중생 자신이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의 불구의 몸을 지니고 있으면 법을 닦기 어렵고 혹,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했더라도 세상 높음이나 일에 팔려 있으면 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세상의 학문이나 다른 종교 또는 취미와 오락에 빠져 최고의 가치인양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는 불법은 한낱 생활의 도구정도나 미신 밖에는 안되므로 자기의 가치 척도로 헤아려보고 배척하거나 불신하다.

불전불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육신을 지닌 부처님이 세상에 안계시므로인해 법이 드러나있지 못해서 도를 닦기 어려운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분이 오시기 이전의 중생들이라든가 반대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법은 설해 놓으셨지만, 세월이 너무 오래 경과된 까닭에 법이 쇠퇴해져서 믿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중생들을 말한다. 좋은 환경과 건강함 여기에다 부처님까지 모시고 있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을 더욱 큰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덕을 지어야 하고 정진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팔난에 처한 중생을 찾아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불법에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데에 마음을 쏟기도 해야 한다.

◇성각스님 作 '운산(雲山)'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⑬①

불교와 수학

㉖

믿음과 인식

김 용 운

불자 '부처될 수 있다' 무한 가능성 믿음

수학자 '무한의 유한화' 전제 이론 탐구

수학과 불교 철학의 가장 큰 공통성은 무한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불성이 있고, 인간이 수행을 거듭해 가면서 드디어 무한의 경지(부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수행자는 이 믿음에 근거를 두고 스스로 무한의 경지(大悟)를 얻으려 정진하고 있다. 불자는 이 경지를 마음의 세계에서 구한다. 한편 수학자, 특히 무한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는 '무한을 인식할 수 있다'는 믿음(공리)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두 가지 물음이 나온다. (1) 무한이란 무엇인가(2) 무한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무한의 대상에 대한 작업은 끝이 없다. 우선 무한의 반대말 유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유한의 대상에는 반드시 번호를 붙일 수 있고(순서를 정한다) 아무리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것이라도 유한개라면 끊임없이 자리 매김을 계속해 가면 언젠가는 끝낼 수 있다.

중국의 설화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이 있다. 어느 할아버지 집 앞에 큰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를 가려서 농사를 망치게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 산을 딴 곳으로 옮길 것을 결심하고 매일 산의 흙을 지게로 날랐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은 이미 늙어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연히 헛일을 하는군요. 그냥 편히 쉬시오"하고 권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내가 못하면 자식이, 내 자식이 못하면 내 손자가, 내 손자가 못하면 ……,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옮겨진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산의 흙덩이가 유한인 이상 그런 작업은 끝이 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한개의 대상은 그럴 수가 없다. 본래 유한의 시간만을 살 수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같이 끝없이 작업을 해야만 되는 무한이란 두려운 존재였다.

그림 · 최주현

가령 1, 2, 3, …… 이라는 수를 셈해 가면 어디까지 가도 끝이 없는 무한이다. 간단한 1과 2 사이에는 무한의 수, 이를테면 1/2, 1/3, …, 1/n, … 등 무한개의 수가 있다. 길이 한 척(尺) 밖에 안되는 실을 매일 그 반씩 접는다 해도 언제까지고 그 작업은 끝이 없다. 이와 같이 무한은 비교적 간단하다. 해변에 흩어져 있는 모래가 우주 전체를 덮고 있고, 그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무한의 모래알이다. 이들 무한의 모래를 인식한다는 뜻은 이들 모래알에 하나씩 번호를 붙이고 순서를 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아무리 많은(무한) 모래알도 전지전능한 사람이면 일렬로 배열시키고 번호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들을 유한개의 토막으로 나누어 그 속에서 대표자를 하나씩 정할 수 있어도 좋다. 이때 유한개의 대표자로서 무한의 모래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이들 사이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정하는 것이다.

수학자는 무한의 대상에 순서를 정하는 것 최대최소를 정하는 것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가능하다'라는 공리를 내걸었다. 즉 무한의 유한화를 믿는다.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해 보이지 못한다 해도 '가능하다'는 공리를 전제로 해서 수많은 이론을 얻어냈다.

'수학은 무한의 과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무한의 실험, 관찰이 있을 수 없으므로 천문학, 생물, 화학, 물리, … 등 실험과 관찰에 근거를 두는 과학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자는 '무한을 인식할 수 있다'는 공리를 내걸고 무한을 과학화했다. 불교 역사상 무한의 경지, 즉 부처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고 수행하는 불자의 모습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간의 위대함을 느낀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교음악
영산재연구

영산재의 구성과 그 신앙적 의의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
영산재의 구성과 범패의 기능은 물론 시련으로 부터 소대의식까지 3일 영산재 전 과정의 의미와 절차를 화보를 곁들여 생생하게 전한다.
부록으로 안채비와 바깥채비의 홋소리, 짓소리 등의 범음 악보를 최초로 정리하여 수록.
법현/ 46배판양장/ 15,000원

"읽으면 견처를 얻고
실천 수행하면 견성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해탈한다."

구름에 달 가듯 그물에 바람 가듯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으로 대자유인이 되라!
날뛰는 마음에 고삐 물려
한마음 잘 다스리면 천하가
내것인 줄
왜 미처 모르는가!
제1장 태어나기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
제2장 역류문 (逆流門)
제3장 중도선 (中道禪)
제4장 조사선 (祖師禪)
법산/ 신국판/ 326쪽/ 7,500원

마음 챙기는 법
中道禪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온주사 전화 (02) 720-9372~3, 735-9170/ FAX (02)723-0646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
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
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6,000원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지장정사〉로 연락하세요.
전화 (02) 651-3880
도서출판 窓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